

10월 전국 집값 0.17% 올라

서울·부산 오름세 지속... 매매0.17%·전세0.14%↑, 월세0.02%↓

올해 10월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격은 가을 이사철에 본격 접어들며 전월보다 큰폭 상승했다. 반면 월세가 격은 지난해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10월 전국 주택가격에 따르면 전월 대비 매매가격은 0.17% 전세가격 0.14% 상승했다. 반면 월세가격은 0.02% 하락했다.

매매가격은 지난해보다 0.09%포인트 확대된 0.17%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0.49% 상승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신규 분양시장 수요는 계속된 반면 기존 분양이 침체된 지방의 하락세는 이어졌다. 하지만 저급부자수요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계속되는 데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전월대비 수도권은 0.26% 지방은 0.08%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강남권 재건축단지과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택지 개발지구 신규 분양시장에 관심이 이어졌다.

서울은 둔촌중공관리처분총회 통과 등 정비사업이 호조세를 이어가며 0.43% 상승했다. 인천에서는 서울 접근성이 좋은 부평구와 스마트시티 등 개발호재가 있는 서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0.12%)됐다.

경기는 고양시와 김포시, 평택시 등 서울에 인접한 지역의 호조세가 이어지고 경강선 개통으로 광주시와 이천시 상승세가 이어져 0.17%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등부산 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신규 분양시장 호조세가 이어지는 부산이 높은 상승률

을 이어갔다. 광주와 전북의 매매가가 상승 전환하고 철도건설과 신공항 등 광역 교통망 호재가 있는 강원과 제주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방 시도별로는 부산(0.59%), 강원(0.17%), 제주(0.16%), 전남(0.13%) 등은 상승한 반면 충남(-0.10%)과 경북(-0.09%), 대구(-0.07%) 등은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0.24% 연립주택 0.05% 단독주택 0.07%가 각각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06%포인트 확대된 0.14% 올랐다. 전년 동월보다는 1.09%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일부 지역에 신규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 수급불균형이 다소 해소됐지만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월세전환 가속화로 전체적으로는 전세난이 계속됐다.

수도권은 0.19% 지방은 0.10%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노후 재건축단지 저가임대와 위례·하남미사 입주가 계속되면서 강동구를 중심으로 하락했지만 학군과 접근성이 좋은 양천구와 금천구 등이 상승세가 확대되며 0.20% 상승했다.

경기는 신규 공급이 많은 하남시에서 하락 전환했지만 고양시와 평택시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지면서 0.19% 상승했다. 인천은 부평구와 계양구가 상승세가 이어지며 0.17% 올랐다.

지방에서는 신규공급이 많고 기반산업 경기가 침체된 지역의 하락세는 계속되는 반면 부산과 강원, 충북의 상승폭은 확대되고 광주와 울산도 상승 전환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 시도별로는 부산(0.06%), 세종(0.03%), 제주(0.03%), 전북(0.02%) 등은 오름세를 보인 반면 경남(-0.21%), 울산(-0.18%), 충북(-0.11%), 경북(-0.08%), 대구(-0.07%)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월세는 0.08% 준월세는 0.04% 하락했다. 반면 준전세는 0.07% 상승했다.

전월세통합 기준으로 부산(0.24%), 경기(0.13%), 서울(0.12%), 세종(0.11%), 인천(0.11%) 강원(0.11%) 등이 강세를 보였다. 경북(-0.07%), 경남(-0.07%), 충남(-0.07%), 울산(-0.05%) 등은 약세를 보였다.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0.12% 연립주택은 0.02%씩 상승했지만 단독주택은 보합했다. /뉴시스

지방 시도별로는 부산(0.41%), 강원(0.18%) 등은 상승한 반면 충남(-0.07%), 경북(-0.07%), 대구(-0.03%)는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0.21% 연립주택 0.08% 단독주택 0.03% 각각 오름세를 이어갔다.

월세가격은 수도권에서 가을 이사철 수요 영향으로 3개월 연속 보합세에서 상승 전환했지만 지방은 임대목적의 주택공급이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하락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01% 상승, 지방은 0.05% 하락했다.

유형별로 서울은 0.02% 하락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0.01%와 0.03%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제주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광주와 전북은 상승 전환했다. 반면 경남과 울산, 충북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전남에서 하락 전환해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지방 시도별로는 부산(0.06%), 세종(0.03%), 제주(0.03%), 전북(0.02%) 등은 오름세를 보인 반면 경남(-0.21%), 울산(-0.18%), 충북(-0.11%), 경북(-0.08%), 대구(-0.07%)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월세는 0.08% 준월세는 0.04% 하락했다. 반면 준전세는 0.07% 상승했다.

전월세통합 기준으로 부산(0.24%), 경기(0.13%), 서울(0.12%), 세종(0.11%), 인천(0.11%) 강원(0.11%) 등이 강세를 보였다. 경북(-0.07%), 경남(-0.07%), 충남(-0.07%), 울산(-0.05%) 등은 약세를 보였다.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0.12% 연립주택은 0.02%씩 상승했지만 단독주택은 보합했다. /뉴시스

지방 시도별로는 부산(0.06%), 세종(0.03%), 제주(0.03%), 전북(0.02%) 등은 오름세를 보인 반면 경남(-0.21%), 울산(-0.18%), 충북(-0.11%), 경북(-0.08%), 대구(-0.07%)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월세는 0.08% 준월세는 0.04% 하락했다. 반면 준전세는 0.07% 상승했다.

전월세통합 기준으로 부산(0.24%), 경기(0.13%), 서울(0.12%), 세종(0.11%), 인천(0.11%) 강원(0.11%) 등이 강세를 보였다. 경북(-0.07%), 경남(-0.07%), 충남(-0.07%), 울산(-0.05%) 등은 약세를 보였다.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0.12% 연립주택은 0.02%씩 상승했지만 단독주택은 보합했다. /뉴시스



따뜻한 겨울 홈웨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미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겨울 홈웨어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미트는 수면 잠옷, 기디건 등 겨울 홈웨어를 전국 롯데미트 매장에서 판매한다.

식품업계 지주사 전환 등 활발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적 부의 승계우려” 지적도

식품업계 자녀들이 지주사 전환과 지분매각 등을 통해 승계직업에 분주하다. 오너 2세와 3세들을 향한 이같은 지분승계 움직임은 기업에 이토록 해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인 반면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적 부(富)의 승계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조산업 주진우 회장은 27일 시간의 매매를 통해 장남 주지홍 상무가 대주주로 있는 사조시스템즈에 사조산업 주식 25만주를 매각했다.

사조그룹은 국내 35개 계열사 중 사조산업 등 6개의 상장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조시스템즈는 29개 비상장 계열사 중 하나다.

이 거래로 주진우 회장의 주식은 99만7046주에서 74만7046주(14.94%)로 줄어들고 사조시스템즈의 주식은 93만7330주에서 118만7330주(28.75%)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사조시스템즈는 사조산업의 최대주주가 됐고 사조시스템즈의 대주주 주지홍 상무는 지배구조의 최상위로 올라서게 됐다.

사조산업은 사조해표, 사조대림, 사조오양, 사조씨푸드 등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회사다.

주지홍 상무는 25일에는 시간의 매매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사조해표 주식 전량 20만8880주를 사조산업에 매각했다.

크라운제프그룹 운영권 회장은 24일 시간외매매를 통해 장남 윤석빈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두라푸드에 4.07%의 크라운제프와 지분을 매도했다. 이와 별도로 윤석빈 대표에게 3.05%의 지분을 증여했다.

이 거래를 통해 두라푸드는 크라운제프와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사실상 3세 승계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윤석빈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4.07%와 두라푸드가 가진 24.13% 등 27.2%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게 됐고 운영권 회장은 기존 27.38%의 지분이 20.28%로 줄면서 2대주주로 내려섰다.

대상그룹은 12월1일자로 대상과 대상에프엔에프의 외식사업부분을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대상베스트코에 양도한다. /뉴시스

전주시, 공공비축미곡 매입으로 쌀값 안정화

지난해 2818톤보다 18% 증가한 3429톤 매입 계획

전주시가 쌀 가격 안정을 위해 2016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나선다.

전주시는 11월 1일 전주시 평화2동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전주농협 모악창고 등 4곳에서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적리곡 매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전주지역 매입 계획량은 지난해(2818톤)보다 18%(611톤) 증가한 3429톤(8만7338포대/40kg)이다.

이는 공공비축미곡 2000톤과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 후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격리시키는 시장적리곡 1300톤을 합한 물량이다.

매입품종은 신동진, 새누리 등 2개 품종이며, 매입가격은 40kg 조곡 기준 한 포대당 특등급 4만6480원, 1등급 4만1500원, 2등급 4만3000원이다.

시는 매입시 농업인에게 우선지급금

4만5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우선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산지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2017년 1월에 사후 정산해 지급하게 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획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쌀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 및 안정 도모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오늘부터 코카콜라·한타 가격 평균 5% 인상

코카콜라와 한타가 다음달부터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

코카콜라음료는 지난달 31일 “11월1일부터 코카콜라와 한타 2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의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2014년 12월 후 2년만이다.

코카콜라음료 측은 “이번 인상은 올해 들어 유가, 원당 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 제로경비 및 판매 관리비 상승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맥주업계 1위 오비맥주는 이달 1일부터 카스 등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 인상한다.

업계 관계자는 “콜라와 오비맥주가 가격인상에 나서면서 다른 주류·음료류 가격 역시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홈플러스, 푸드 와인 2종 출시

홈플러스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푸드 와인’ 2종을 출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푸드 와인은 아르헨티나 말베크와 사도네이, 토론텐스의 블렌딩으로 만든 그란 로모(레드)와 그란 마르스(화이트) 2종으로 가격은 각각 7900원이다. 푸드 와인은 라벨에 와인과 어울리는 요리 재료를 그려 누구나 쉽게 와인과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품종인 말베크의 세계적인 와인너리 명가로 손꼽히는 트리벤토가 선보이는 그란 로모와 그란 마르스, 와인 산지를 대표하는 품종으로 만들어 품질을 높이면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 와인이다.

육류 요리나 바비큐와 잘 어울리는 그란 로모는 집중력 있는 검은 과일, 감초 등의 향신료 향과 부담 없는 바디감으로 와인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편하게 마실 수 있다.

트리벤토 와이너리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화이트 품종인 사도네이와 토론텐스를 블렌딩한 그란 마르스는 레몬, 라임의 상큼한 시트러스 향과 달콤한 과일의 풍미가 잘 어우러진 와인으로 새우, 조개와 같은 해산물 요리와 잘 어울린다.

홈플러스 측은 “그란 로모와 그란 마르는 일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와인인 생선구이, 스시 등과 같은 해산물 요리와 육류를 즐겨 먹는 아시아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잘 맞을 것으로 예상해 소싱해 왔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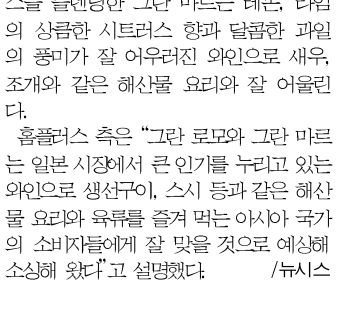
윌동준비에 방한용품 판매 급증

지난 주말 가을 비가 내린 후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며 사람들의 윌동 준비가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티몬은 24일부터 28일까지 방풍비닐과 뽀뽀이, 난방텐트 등 방한용품 판매 추이를 조사한 결과, 직전 동기 대비 매출이 89% 상승했다고 밝혔다.

유리창에 붙여 외부 한기를 막아주는 뽀뽀이(에어캡)가 81% 매출이 오른 가운데, 창문과 베란다 등에 부착해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방풍비닐도 매출이 130% 늘었다.

이밖에 창문 틈새 바람을 막아주는 문풍지가 58%, 단열벽지가 22% 매출이 증가했다. 외풍을 차단하는 실내용 난방텐트도 103% 매출이 상승하며 인기를 끌었다. /뉴시스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